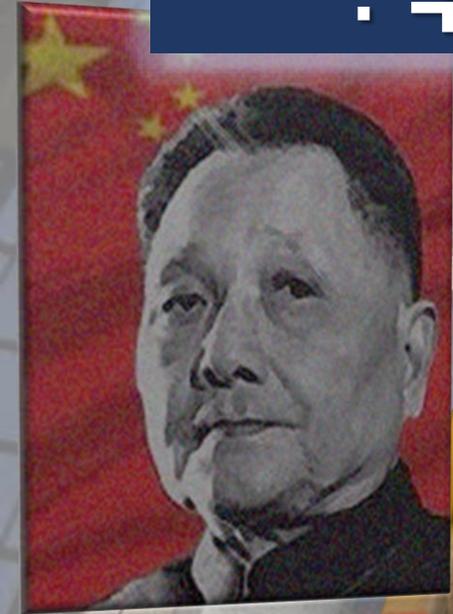


2023.5.12. 현대중국학회

시진핑 3기 집권과 중국 엘리트 정치의 새로운 조류 : 후계구도의 실종과 권력엘리트의 총성경쟁 체제



이울빈(성균중국연구소)

1. 연구의제

■ 19대 이후 시진핑의 권력강화 행보와 평가

1) 시진핑이 확보한 영역

- ▶▶ 국가주석 연임제한 철폐
- ▶▶ 시진핑 파벌 정치국 장악
- ▶▶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장 삽입
- ▶▶ 총서기 3연임과 후계자 사전선임 미이행

2) 시진핑이 확보하지 못한 영역

- ▶▶ 집단지도체제의 근본적 제도 틀
 - 중앙위원회 편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 권한
 - 집단지도 원칙 관련한 당장 조항
- ▶▶ ‘두 개의 확립’ 당장 삽입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집단지도체제 내부의 권력구조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정남 2017).

“현재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시진핑으로 권력이 집중된 ‘집권형’ 집단지도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영남 2023)

→ 압도적인 권력독점으로 보기에에는 아직 어려우나, 전대와 확연히 차별적인 과도기

1. 연구의제 (계속)

■ 연구의 질문

노골화된 최고지도자의 개인독재 의지가 엘리트 정치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논문의 연구의제

‘후계구도 실종’이란 현상 속에서 중국 엘리트들의 합리적 선택 요인 분석

■ 연구의 주장

개인독재로의 이행이 가시화된 국면에서 권력엘리트들은 개인독재에 저항하기보다는 충성을 택할 합리적 요인이 크며, 후계구도가 실종된 시진핑 3기의 정치 현실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집단 내 충성경쟁 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2. 중국의 권력승계 문제와 '후계구도의 실종'

■ '후계구도의 실종'

① 제도 자체의 실종

“시진핑의 전대 총서기였던 후진타오는 취임 10년 전 '격대지정'으로 사전선임되었고 시진핑 본인도 취임 5년 전에 사전선임된 데 반해, 현직자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는 물론 3연임에 성공한 20차 당대회에서도 차기 지도부를 사전 지명하지 않았다.” (p. 3)

② 제도 이면의 세력균형 구도의 실종

- ▶ 권력승계 자체가 미지수가 됨
- ▶ 시진핑 파벌의 중앙 정치국 장악 → 세력균형 붕괴
- ▶ 제도의 두 가지 측면
 - ① '게임의 법칙'
 - ② 구조를 현실에 반영하는 구조의 담지자 (cf. middle range theory)

→ 시진핑의 순조로운 권력강화를 제어할 '제도장치'와 '세력균형'의 동시 붕괴

3. 독재자의 권력강화와 권력엘리트의 충성게임

■ 권위주의 엘리트의 '모반(rebellion)'과 '신뢰성(credibility)의 부족'

▶▶ 권위주의 권력 유지 및 강화의 열쇠

▶ '권력공유(power-sharing, Svobik 2012)'를 통한 독재자-엘리트 집단의 제휴

▶▶ 독재자 권력독점의 반대급부

▶ '동맹의 모반(allies' rebellions)'

▶▶ 모반의 한계

▶ '신뢰성(credibility)의 부족'과 비싼 시작비용(staging costly)

▶ 집단이익으로서의 '모반'과 집단행동의 딜레마

→ 근본적으로 집단행동의 논리와 결부된 '동맹의 모반'

3. 독재자의 권력강화와 권력엘리트의 충성게임 (계속)

■ 권위주의 엘리트의 충성게임(한병진 2021, 161) (p. 7)

		엘리트 B	
		도전	충성
엘리트 A	도전	$b \times [1/1-p(\text{집단독재})], b \times [1/1-p(\text{집단독재})]$	$0, a \times [1/1-p(\text{개인독재})]$
	충성	$a \times [1/1-p(\text{개인독재})], 0$	$c \times [1/1-p(\text{개인독재})], c \times [1/1-p(\text{개인독재})]$

a : 혼자 충성했을 때의 보상

b : 모두가 도전한 집단독재의 경우 얻는 보상

c : 개인독재에서 모든 엘리트가 충성할 때 얻는 보상

p : 개인독재/집단독재 하에서 직을 유지할 확률

“p(개인독재) 값이 커질수록 $[1/1-p(\text{개인독재})]$ 값 역시 커지므로 이 충성게임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여 엘리트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도전보다는 충성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독재자는 이러한 보상구조를 활용하여 초기 권력강화 과정에서 **p(개인독재) 값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신중한 언사와 속내의 은폐를 들 수 있다.” (p. 8)

3. 독재자의 권력강화와 권력엘리트의 충성게임 (계속)

■ 수정된 권위주의 엘리트의 충성게임 (p. 8)

		엘리트 B	
		도전	충성
엘리트 A	도전	$b \times (1-p), b \times (1-p)$	$0, a \times p$
	충성	$a \times p, 0$	$1/2a \times p, 1/2a \times p$

a : 혼자 충성했을 때의 이익계수 ($a > 0$)

b : 집단독재를 지켰을 때의 이익계수 ($b > 0, a > b$)

p : 엘리트가 예상하는 개인독재가 굳어질 확률 ($0 < p < 1$)

1-p : 엘리트가 예상하는 집단독재가 존속할 확률

→ a, b, p 의 값에 따라 게임 유형 변화

3. 독재자의 권력강화와 권력엘리트의 충성게임 (계속)

■ 수정된 권위주의 엘리트의 충성게임 (p. 8)의 유형 변화

		엘리트 B	
		도전	충성
엘리트 A	도전	$b \times (1-p), b \times (1-p)$	$0, a \times p$
	충성	$a \times p, 0$	$1/2a \times p, 1/2a \times p$

(1) $p \geq 0.5$ 의 경우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a \times p > b \times (1-p)$ 이므로 (즉, $a > b \times (1-p)/p$ 가 항상 성립하므로), 엘리트 A의 우월전략은 충성 (p. 9)

(2) $p < 0.5$ 의 경우 : 사슴사냥 게임 (가변적)

① $a \times p < b \times (1-p)$ 의 경우: 두 개의 내쉬균형(도전-도전, 충성-충성)을 지닌 사슴사냥 게임(단, 도전-도전은 조정 要)

② $a \times p \geq b \times (1-p)$ 의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

→ ① p 값이 클수록, ② a 값이 클수록, ③ b 값이 작을수록,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근접

4. '후계구도의 실종' 과 총성게임 구도의 강화

■ 시진핑 3기 중국 정치 현실과 총성게임 a, b, p 값의 변화

① 강대해진 시진핑의 권력

- ▶ 엘리트가 예상하는 개인독재가 굳어질 확률 p의 증가

② 차기 지도자가 누릴 권력의 확대

- ▶ 시진핑의 심복이 되어 누리는 이익계수 a의 증가

③ 시진핑 단일 파벌 속, 모반의 시작비용 증가

- ▶ 도전을 선택했을 때의 이익계수 b의 감소

④ 원샷게임의 특징 강화

- ▶ 원샷게임으로 인해 협력과 조정의 비용 증가

⑤ 손실회피 경향 강화

- ▶ 모반 실패 시의 이익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리스크 증가

4. '후계구도의 실종' 과 총성게임 구도의 강화

■ 시진핑 3기 중공 엘리트 A의 선택지

		엘리트 B	
		도전	총성
엘리트 A	도전	1. 집단지도체제 수호	2. 소수 불만세력
	총성	3. 돋보이는 선두주자	4. 총성경쟁 체제

“시진핑 3기의 엘리트 A는 시진핑의 권력독점에 마주하여 여러 선택지를 고려한다. 다른 엘리트들과 단합하여 시진핑에 도전하는 [1. 집단지도체제 수호]의 선택지를 고려하기에는 높은 시작비용으로 인해 낮아진 보상의 기댓값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자신만 도전에 나서고 타 엘리트들이 동참하지 않았을 때 [2. 소수 불만세력]이 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다. 반면 총성의 선택지를 골랐을 때, 도전을 택한 다른 엘리트들이 있다면 자신은 시진핑 3기 체제에서 [3. 돋보이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설령 다른 엘리트들도 자신처럼 총성 대열에 합류해 자신과 이익을 분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2. 소수 불만세력]이 되는 길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선택 요인은 엘리트 B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결국 시진핑 3기 엘리트들 간의 총성게임은 모든 엘리트 A가 시진핑에 총성하는 [4. 총성경쟁 체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p. 12)

5. 결론

■ 전망 및 연구의 한계

“시진핑의 권력이 아무리 가파르게 강화되고 충성경쟁 체제가 본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독재자는 홀로 통치할 수는 없다(Mesquita et al. 2003, 28-29; Svobik 2012, 79). …(중략)… 기존 권력엘리트 중에서 다시금 핵심적인 심복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과 권력공유에 나설 것이다.” (p. 12)

“첫째, 합리적 선택 모형에서 설정한 값들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파벌이나 결사가 결성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기율검사로 인해 불만을 갖는 엘리트들이 속출하게 된다면 상기 모형의 보상 기댓값은 도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p. 13)

“둘째, 합리적 선택의 가정이 유지되더라도 단절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략)… 돌발적 사건 등으로 인해 시진핑의 개인권력이 감소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 등이 중국 엘리트 정치에 큰 파장을 몰고 왔을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p. 13)

감사합니다!!

